

다구를 찾아서

10 금화오잔



차담 나누니 마음과 눈이 유쾌하다

조선 이전의 차문화 연구하는 사료가 부족한 가운데, 송의 사신으로 고려를 방문한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이하 고려도경)>은 고려의 차문화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고려도경>은 송의 국신사(國信使) 일행이었던 서긍(徐兢, 1091~1153)이 고려를 다녀간 후, 휘종에게 올린 사행보고서(使行報告書)이다. 국신사 일행은 1123년 6월 고려에 도착해 한 달 남짓 머물면서 공식일정을 수행하고 돌아갔다. 국신사 일행이 한 달 여 체류 기간 동안 보고 들은 고려의 역사·정치·경제·문화·종교 등을 글과 그림으로 빠짐없이 정리한 것이 <고려도경>이다. 서긍은 예합인선에 물관(提轄人船禮物官)으로 사절단의 인원·선박·예물 등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그는 해서와 행서 및 전서에 능했고 특히 그림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고려도경>은 40권으로 구성됐다. 그 중 <관사(館舍)> <기명(器皿)> 편에 고려의 음다풍속과 다구의 유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청자철채음각 보상화당초문 완(靑磁鉄彩陰刻寶相華堂草文碗). 일본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 소장. 입지름 10.8cm.

<관사>편에는 "항상 차를 마실 수 있는 도구가 상비돼 있었다. 정사(正使)와 부사(副使)가 여유

있는 날이면 언제나 상절(上節)의 관속들과 차를 끓여 마셨고, 항림정에서 비옥을 두며 하루 종일 담소하니 (이는) 마음과 눈을 유쾌하게 하고 더위를 물리치는 방법이었다"라고 기술했다. 이에 고려 시대에는 차 마시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고려에는 차가 전래된 지 300여 년이 넘었고 뇌원차(腦原茶), 유차(儒茶), 대차(大茶) 등의 토산차가 생산되고 있었다. 차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불교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마시는 일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기명>에는 "탕호(湯壺)의 형태는 화호(花壺, 꽃꽂이 병)와 같고 약간 납작하다. 위에 뚜껑이 있고 아래는 받침이 있어서 온기(溫氣)를 뿜기지 않게 했다. 옛 보온기(溫器)의 일종이다. 고려 사람들은 차를 끓일 때 흔히 이 호를 사용한다. 호의 높이는 1척 8촌이고 그릇의 지름은 1척이며 용량은 두 말에 들어간다. 화호는 썰개를 달아 매 놓은 것처럼 생겼다"라고 적었다. 탕호는 승반(承盤)과 한조로 구성

돼 있는 주자(注子)를 말한다. 이것의 형태, 용량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고 가루 낸 차에 물을 부어 차거품을 만들어 마시는 점다법에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근래에는 차 마시기를 제법 좋아한다. 더욱이 고려 사람들은 다구를 잘 만드는데, 금화오잔(金花烏盞)이나 비색소구(霽色小盞), 은로탕정(銀爐湯鼎) 같은 다구는 모두 중국 것을 은근히 모방한 것이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금화오잔이다. 고려도자 유품 중에서 금화오잔은 현존하지 않고 <고려도경>의 그림도 남아있지 않아 정확히 금화오잔이 어떠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다만 '금색 꽃무늬가 그려진 검은 잔'으로 추정할 뿐이다. 당시 송에서는 건요와 길주요에서 생산한 흑유잔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천목잔이라 부르는 송의 흑유잔이 인기가 높았다. 고

려와 송은 사행무역과 도당유학승을 통해서 차와 다구의 교류가 빈번했다. 이를 통해서 고려에 송의 흑유잔이 전파·유입됐을 것이며, 당연히 그 특징을 파악하고 스스로 생산했으리라 짐작한다. 고려는 이미 세계 최고의 청자 생산 국가로 송과 버금가는 자기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흑유잔의 생산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은 고려 시대에 생산된 다른 형태의 도자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색소구는 11~12세기 고려자기 가운데 대표적인 형태인 청자 다완을 말하는 것이고, 은로탕정은 은으로 만든 화로와 찻물을 끓이는 세발 달린 솥을 말한다. 초기 고려청자의 가마터 조사에 따르면 다기류(茶器類)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라고 하니 고려인들이 차를 얼마나 즐겨했는지 짐작된다.

일본 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에 소장된 이 완(碗)은 금화오잔의 유형으로 짐작하는 차잔이다. 고려 시대 12세기 전반에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긍이 말한 금화오잔도 이러한 색과 모양이 아닐까 생각해보자.

백기란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31 사명암 꽃비



통도사 사명암. 간밤에 꽃비가 내렸다. 비의 흔적은 문장 밑을 지나가는 밀줄처럼 대지 위에 남아있었다. 어둠 속을 흐르던 비의 궤적은 꽃잎 끝에 붉은 괄호 속으로 사라졌고, 문장 끝으로 다가온 아침 햇살이 꽃잎마다 마침표를 붙이고 있었다. 간밤에 꽃비가 내렸다. 아침은 꽃이 지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나서 삼매에 들었고, 꽃이 살던 곳

의 빛깔은 봄바람에 후드득 후드득 날아가고 있었다. 한 평 마당에 꽃비가 내렸을 뿐인데 계절은 목전에 와있고, 법당에 앉은 손바닥만한 마음은 언제 열릴지 모르는 부처님의 입처럼 무겁기만 했다. 아침 목탁도 울었을 텐데 간밤에 꽃비 내린 뜻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법당 가는 스님 뒤로 산새만 지저귀며 날아간다.

옛 판화의 세계

반승의 공덕을 깨닫다 (飯僧餽金)

송나라 때 거사 홍경선(洪慶善)이 강동절 도사에 임명돼 부임하는 길에 지주(池州)에 묵게 됐다. 이때 우구사의 종(宗) 선사(僧)가 홍 거사를 영접해 반승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홍 거사는 종 선사에게 반승공덕에 대해 깨달고, 살하는 이 장면들을 순서대로 판각한 것이다.

반승(飯僧)은 신도가 스님들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베푸는 것으로, 재승(齋僧)이라고도 한다.

홍경선은 종 선사에게 물었다. "반승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경에 나타나 있습니까?"

<42장경>에 이르기를 '보통사람 100명에게 밥 공양하는 것이 착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밥 공양을 하는 것만 못하고, 착한 사람 1000명에게 밥 공양을 하는 것이 무주무작무증(無住無作無證)의 경지에 이른 한 사람에게 밥 공양을 하는 것만 못하다. 그 무주무작무증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바른 염을 지닌 홀로 해탈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밥 공양을 할 수 있다면 그 공덕은 모든 부처님의 공덕과 같다. 선배들 가운데

이 뜻을 안 사람은 많았다'라고 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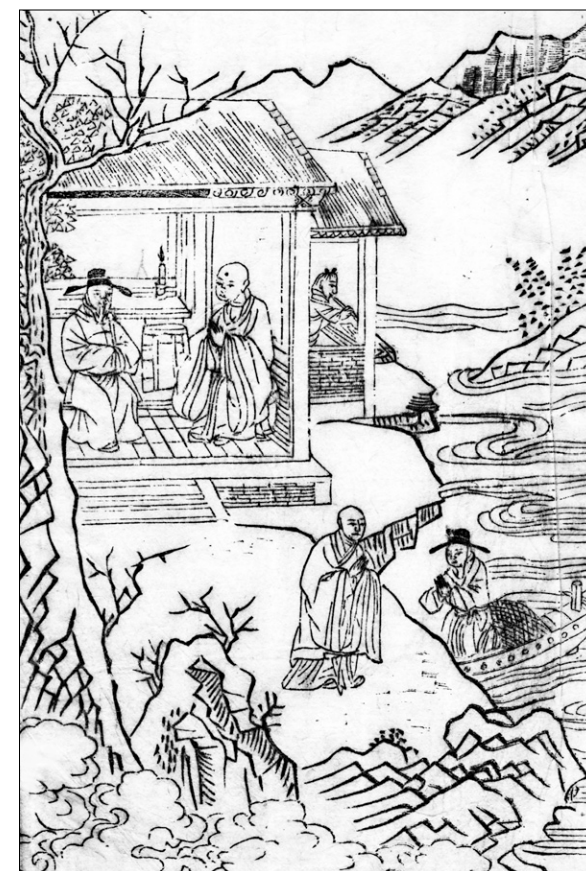
"누구입니까?"

종 선사는 "진소유가 등주로 귀양 가면 서 스스로 지은 만장이 있는데, 거기에 '수위반행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소동파가 진소유의 부고를 듣고, 범원자에게 편지와 은 다섯 량을 보내면서 진소유를 위해 스님들에게 밥 공양을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소동파가 북쪽으로 돌아와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되자, 태학생들이 돈을 모아 동경 해미사에서 반승을 했습니다."

이에 홍경선은 "지금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반승이란 것이 이와 같은 공덕이 있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침내 공경하고 믿는 마음이 일어나 해마다 선찰에서 스님들에게 반승을 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반승의 공덕과 반승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또한 선방에 대중공양을 올리는 불자들의 마음이 공양을 받는 안거 수행자들이 무상의 깨달음을 얻어 반승공덕이 회향됐으면 하는 옛 선인들의 마음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반승진금(飯僧餽金). 불암사 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상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 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연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평가, 신발,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장 불탑사 의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원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현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